



깃동잠자리.



다람쥐.



은줄표범나비.



쑥부쟁이.

홍천에서 공작산 수타사까지는 10여 킬로미터 남짓한 거리이다. 수타사 가는 길은 덕치천이 오며 가며 길을 함께 한다. 덕치천은 해발 887미터의 공작산과 876미터의 대학산 골짜기에서 발원한 홍천강의 한 지류이다.

덕치천에 접한 주차장은 수타사의 들머리이다. 비가 온 뒤라 물은 바다가 보일 정도로 맑다. 굳이 바짓가랑이 걷고 물속으로 들어가도 물고기들의 평화로운 수영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덕치천의 수질은 돌고기 종개 피라미 같거나 모래무지 통가리 새코미꾸리 밀어 등이 살고 있는 2급수이다. 이들 종류는 상류 쪽 수타사 계곡에서도 관찰된다.

돌고기는 덕치천과 수타사 계곡의 수질을 간접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지표종이다. 자갈과 돌이 깔린 곳을 좋아한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매표소를 지나면 오른쪽으로는 노송 숲 속에 부도들이 자리하고, 왼쪽으로는 높은 보가 수타사 계곡을 가로막고 있다. 부도 주변의 노송은 즐기마다 송진을



부도전 옆 잣나무(위) · 헌식(獻食)대(아래).

햇빛 풍부한 부도밭 초본류 즐비 거둬들 불사로 도량 중심 밀려나 '용담' 포유류 서식 가능성 높아

채취한 생채기들이 나 있어서 눈을 아프게 한다.

어느 절이나 부도밭 주변은 대개 초본류들이 무성하다. 주름조개풀 여러 맥문동 양지꽃 달개비 고마리 고들빼기 쥐손이풀 짚신나물 루드베키아 개망초 등등의 초본들이 화엄세계를 이루고 있다.

햇볕이 좋고 초본류가 무성하면 곤충들이 모여들기 마련이다. 두줄나비 세줄나비 은줄표범나비 사향제비나비 등을 비롯해 풀매미 버메뚜기 고추잠자리 풍이 등등이 맑은 가을 햇살을 희롱하고 다닌다.

덕치천을 막은 보는 덕치리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물을 가로막으면 지형과 식생이 바뀌고, 그에 따라 곤충과 조류상이 바뀐다. 유속이 떨어지면 물은 더 이상 토사들을 실어 나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내려놓게 된다. 하상이 높아지고 위쪽에 모래와 자갈밭이 생기는 것도 그 때문이다.

숲길 오른쪽에 문짝도 없는 서낭당이 허술하게 앉아 있다. 서낭은 집을 나가고 주인 없는 빈 집을 석가모니불이 지키고 있다.

보를 지나면 수타사 계곡이 시작된다. 수타사 계곡은 공작산 서남쪽 골짜기에서 발원해 약 6킬로미터 가량을 흘러서 비로소 수타사에 이른다. 수타사를 돌아 덕치천이 되고 덕치천은 홍천읍에 이르러 홍천강과 합류해 북한강이 된다.

수타사는 통일신라 성덕왕 때인 708년에 일월사(日月寺)라는 이름으로 처음 창건됐다. 그러다가 조선 선조 때 공작대사가 현 위치로 옮기면서 '수타사(水陀寺)'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한자를 '水陀'로 바꾼 것은 조선 후기 선조 때의 일이다.

수타교 앞 삼수리나무에서 공작교에 이르는 구간은 팔중이의 땅이다. 팔중이는 회갈색에 검은 점무늬가 있는 메뚜기이다.

수타사는 봉황문이 일주문을 대신하고 있다. 봉황문 안에 모셔진 사천왕은 6백 년 동안 <월인천보>를 가슴에 품어온 영험 있는 사천왕이다.

봉황문과 홍화루를 지나면 경내가 펼쳐진다. 대적광전과 원통보전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아랫단 좌우로 심우산방과 요사채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본전인 대적광전이 경내 중심에서 많이 밀려나 있다. 본래 자리지만 거둬들 불사로 경내가 넓어지면서 한 쪽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대적광전과 원통보전 뒤 산자락에 참취 쑥부쟁이 노루오줌 산골불주머니 등이 가을을 열고 있다.

삼성각 앞 좌우에 섬잣나무가 서 있다. 일반 잣나



수타 · 공작 · 덕치... 이름만 들어도 마음 맑아져

천연기념물 330호 수타의 서식 가능성이 높은 수타사 용담계곡. 수타사의 수행환경은 이 계곡의 생태환경에 달려있다.

무와 같이 잎은 5개씩 묶여 있으나 길이가 짧다. 내염성과 내한성이 강하지만 생장은 느린 편이다.

벌종각 옆에 늪은 전나무가 하나씩 잎들을 털어내며 임종을 기다리고 있다. 열반을 앞둔 노장처럼 뼈만 앙상하니 남아서 쳐다보는 마음이 안쓰럽다. 요사채가 없는 석축은 막돌로 쌓아올렸다. 그 석축 틈 사이를 다람쥐가 들락날락한다. 근래 들어 다람쥐들이 절 주변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헌식대에 음식물들이 너저분하게 쌓여있다. '헌식(獻食)'은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음식을 조금 거두어서 집귀들에게 나눠주는 제례 풍속이다. 심우산방 옆에 강원도 보호수 제166호로 지정된 수령 5백년의 주목(朱木) 한 그루가 있었다. 이 주목은 공작대사가 짓고 다니던 지팡이였다 한다.

수타사 주변은 키 큰 장송을 중심으로 비교적 식생이 탄실하고 자연성이 높다. 얼마 전에 홍천군이 수타사 주위 '사찰림'을 풍취 보안림으로 지정했다.

밖으로 나가면 또 초지와 미완성 연못이 있다. 몇

해 전 생태연못 바람이 불면서 홍천군에서도 1억여 가까운 돈을 들여 이곳에 생태연못을 조성하려고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연못 주위에 물달개비와 부들이 보인다. 이들 정수성 수생식물은 수타사와 같은 계곡이 아니라 논이나 평지 연못을 적지로 하는 식물이다.

드넓은 초지는 버려진 땅이다. 연못을 만든다고 파낸 흙들을 적체하여 황무지 둔덕을 만들어 놓았다. 여뀌 고마리 갈퀴명갈 지칭개 등등의 풀들이 무성한 이곳에다 군 당국은 솜털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

연못을 지나 다시 공작교를 건너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기면 용담계곡이 열려있다. '수타(水陀)'라는 이름도 물 좋은 이 용담계곡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깃동잠자리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길을 안내한다. 깃동잠자리는 4개의 날개 가장자리에 깃동같은 흑갈색 무늬가 나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계곡 주변의 지질은 화강암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화강암은 지하 100킬로미터 안팎에 있던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올라와 식으면서 굳어진 것이다. 비중이 가볍기 때문에 지각변동에 따라 먼저 지표면으로 밀려 올라오게 된 것이다.

용담은 화강암이 만든 깊은 '소(沼)'이다. 용담 주변은 화강암 암반과 단애가 절경을 이루고 있다. 암반과 단애에 크고 작은 화과 구멍들이 나 있는데, 이를 '포트홀(pot hole)'이라고 한다. 물이 상류로부터 자갈이나 모래를 싣고 와 바위틈에 넣고 오랜 시간 동안 소용돌이치면서 깎고 갈아서 만든 흔적이다.

계곡 위쪽 바위에 포유류의 것으로 짐작되는 배설물이 있다. 수타의 것으로 짐작된다. 위쪽으로는 인적이 없기 때문에 수타의 서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용담 주변은 수심이 깊어서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다. 예나 지금이나 수타사의 수행환경은 용담계곡의 생태환경과 흡수관계에 놓여있다.

글 · 사진=김재철(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길을 묻는 이에게 들려주는 대행 스님의 지혜의 말씀

삶은 꿈가 아니다



쉽고 명쾌한 대행 스님의 '참' 인생 이야기

때로는 아트막한 산허리를 돌아 흐르는 시냇물처럼, 나지막한 목소리였다가 한순간에 폭포수 같은 사자후를 토해 내기도 한다. 대행스님은 안양의 한마을선원에 계신다. 그러나 어디고 계신다. 오로지 만 생명이 자성을 밝혀 대자유의 세계로 들게 하기 위해 포교와 수행으로 정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쇄

■ 대행 스님 법어 | 해원 스님 엮음 | 254쪽 | 9,000원

왜 스님은 팬티만 입고 공중취학살에 있었을까?

스님이야기

법정·서암·명성·대오 스님 등 85명 수행자들의 일화를 모은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최근 발간된 '스님이야기'는 지복·효림·현진 스님 등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 85명의 일화를 소개했다. 엄숙함의 배일을 걷고 보야도 수행자로서 고결한 자세와 인간미가 도드라진다.

- 조선일보

합천 해인사 주지이면서도 절 주변을 돌며 관광객이 버린 담배꽂이와 휴지를 주웠던 지철 스님, 코피라도 토크 얻어맞아도 상대방에게 우묵걸을 하지 않았던 무술 고수 대오 스님 등 다양한 수행승 이야기가 진솔하게 펼쳐진다.

- 동아일보

지복·허주·수완·정운·원숙 스님 등 15명의 스님이 권자로 나서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 전형적인 학자풍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20여 년 가까이 장좌불와, 오후불식을 해오고 있는 지유 스님 등 곁에서 지켜본 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독자들에 전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복 스님 외 지음 | 448 쪽 | 12,000원

禪

DISCUSSION ABOUT CHANZEN BUDDHISM

문밖에 나서다

중국 선불교 다시 읽기! 그리고 되받아 쓰기!

중국 선사들의 선문(禪文)을 패치워크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

「禪, 문밖에 나서다」는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를 한 군데에 모아 놓고, 내가 그 동안 읽었던 책들, 또는 나의 짧은 생각들과 연계시켜 본 작품이다. 마치 고급 실로 짠 천 조각을 붙여 만든 조각보처럼.....

- 본문 중에서



■ 석해탈 저 | 456쪽 | 14,000원